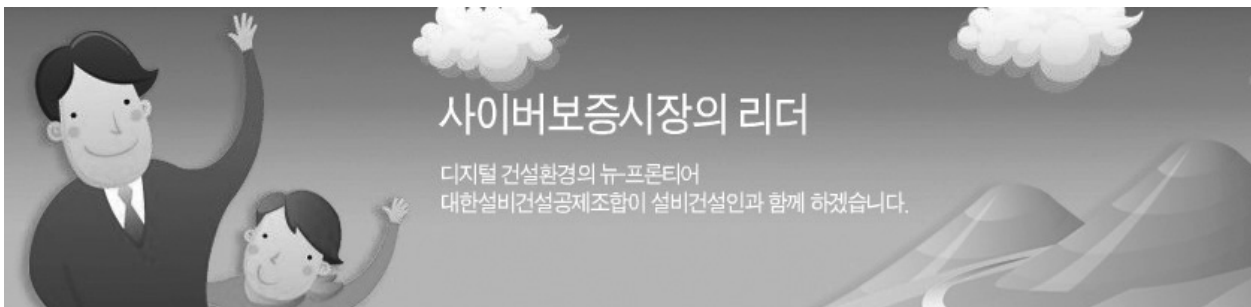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 인하



**대한** 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영식)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전 보증에 걸쳐 보증수수료 요율을 재인하한다. 이번 인하는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경영환경을 지원코자 마련됐다.

조합은 지난 해 2006년 1월 1일부터 주요보증(계

약, 하자, 선급금)의 보증 수수료 요율을 23.0%~32.8%로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재인하로 인해 대다수 조합원이 이용하는 계약보증 및 하자보증 평균 인하율은 각각 23.4%, 34.1%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인하로 조합원은 연간 약21억원의 보증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캄보디아, 베트남을 다녀와서 - 캄보디아 편 ② -

서부지점 안재준

**바**이온에서 북서쪽으로 200m 지점에 위치한 바푸온사원 역시 우주의 중심인 메루산을 상징하여 지어졌다고 하는데, 우다야디티야바르만2세에 의해 시바신에게 봉헌되었다고 한다.



▲바푸온 사원 전경

중심부의 높이가 약 43m로 바이온 보다도 높다고 하나 대부분 손실되어 복구 중이며, 특히 사원 전체가 거대한 나무뿌리 등에 의해 훼손이 심하게 되었는데, 프랑스 복원팀에 의해 복원되다 중단되었고, 현재 일본 복원팀에 의해 100년을 목표로 복원 중 이란다. 주변에는 사원에서 분리된 수많은 돌들이 널려있는데 이를 제자리에 맞추는 것은 거대한 퍼즐게임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피미아나까스 사원은 '하늘의 궁전'이라는 뜻으로



▲사원 주변에 널려진 돌들



▲복원 작업 진행 중

왕궁내의 왕실사원이란다. 삼각뿔형태의 가파른 침탑인데, 라젠드라바르만2세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데, 이 사원 꼭대기 제단에 머리가 아홉 개인 뱀의 정령이 살고 있었고, 왕이 인간인 부인과 동침하기 전에 이 정령이 변한 여인과 먼저 동침해야 하는데 이를 여기면 왕이 죽게 된다고 한다. 이 탑을 오르는 계단은 매우 가파르고 훼손이 심해 오르기 쉽지 않았는데 (본인은 산악회 회원으로 가뿐하게 올랐다), 다른 여인과의 동침에 앞서 뱀의 정령과 동침



▲피미아나까스 전경



▲경고문. '조심' 해서 올라가란다



▲테라스로 가는 길. 가운데 문은 왕만이 지나간다

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참고로 이 동네는 눈이 없다.^^) 어둠 속에서 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던 왕의 체력(?)이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부럽당 ^^)

피미아나까스 사원을 뒤로 하고 왕이 공공행사나 군대사열을 하던 테라스를 향해 가는 길에 어린이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지만 (불쌍한 마음을 접고 과감하게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구매를 해주면 이들의 부모들이 학교를 안보내고 계속해서 장사를 시킨단다. (혹여 불쌍하다고 느끼면 과자나 사탕 등 먹을거리를 주는 게 애들한테 좋다)

왕궁의 정문인 동문과 직선대로(약 350m)로 이어지는 단상(테라스)이다. 동쪽 광장을 향하고 있는 단상은 3개인데, 중앙 단상은 가루다(신들의 신인 비슈누가 타고 다니던 독수리)가 받치고 있으며 양 옆의 것은 코끼리들이 조각되어 있고, 중앙의 단상은 왕이, 양 옆의 것은 신하들이 사용하던 것이란다.

중앙 사열대에서 바라본 드넓은 광장에서 행해졌을 공공행사와 군대사열이 한 편의 영화장면처럼 펼쳐졌다. 광장 뒤편에는 있는 첨탑의 건물들은 외민들의 숙소였다고 한다.

사열대 우측으로 코끼리 테라스와 문동왕 테라스가 연이어 있다. 문동왕 테라스 명칭에 대한 수많은 억측과 가설이 있는데 그 중 유력한 것이 크메르의 전설 중에 왕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던 대신의 목을 벨 때 독기 어린 액체가 튀겨 왕의 몸에 닿아 문동병에 걸렸다는 내용이 있다. 억측에 앞서, 보다 근접한 주장으로 바이온 신전의 이층 갤러리에 새겨진 부조에는 뱀과 싸우던 용맹한 왕이 뱀의 맹독에 쏘여 문동병에 걸리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따라서 문동왕은 바이온을 건립한 자야바르만 7세로 추정한다고 한다.



▲사열대 전경



▲사열대 좌측 전경



▲사열대 우측 전경



▲코끼리 테라스



▲문동왕의 테라스

자야바르만 7세의 덕치(德治)중에서 돋보이는 것이 병원 건설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을 지어 백성들을 치료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승리의 문

쁘레아 칸은 자야바르만 7세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건설한 불교 사원으로, 어머니를 위해 지은 따쁘롬과 기본 설계나 구조가 거의 동일하며 단지, 따쁘롬이 여성적인 아기자기한 멋을 강조한 데 반해 뿌레아 칸은 남성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전쟁 중에 건립한 탓에 의도적으로 용맹과 투지를 북돋우는 듯 석상의 거대함이 돋보인다.

쁘레아 칸의 원래 설립 목적은 불교 사원과 승려 학



교 용도였으나 전쟁 중, 그리고 파괴된 수도 앙코르툼의 복구 작업 시 왕은 이곳에 머물러 뿌레아 칸은 일반 사원과는 달리 왕궁의 위엄을 상징하는 각종 부속물이 추가되어 있어 불만하다고 했지만 일정상 따쁘롬만 관광하게 됐다.

따쁘롬은 영화 「툼레이더」의 배경으로 더욱 잘 알려졌으며 다른 유적지와는 달리 통행로를 제외하고는 전혀 복구가 되지 않은 사원이다.

수백년간 방치되어 있는 석조건물 사이를 스펡나무의 뿌리가 곳곳에 비집고 들어서 사원의 일부는 붕괴되었고 뿌리와 뒤엉켜 더욱 인상적인 경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크메르 왕조의 위대함에 고조되었던 기분이 따쁘롬에 들어서서는 순간 자연 앞에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덧없고 부질없는지를 실감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가 역사에서 사라졌고 방치되어서 라는 생각에 반만



▲따쁘롬 안내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스펡나무들



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이 고조되었다.(역시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실감했다.)

하늘을 향해 쪽 뺏은 위상에 감탄을 자아내는 나무 이건만, 내가 카메라로 찍은 건 겨우 나무뿌리, 그것도 잔뿌리가 이 정도다 보니 도저히 어떻게 찍을 수가 없었다. 나무들이 커도 너무 컸다.

참고로 이곳은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툼레이더」의 주 촬영 현장이다.

졸리가 신비스런 꼬마 아이의 인도로 재스민 꽃을 찾아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지하로 추락하지만 졸리는 땅속으로 길게 뺏은 이 뿌리를 잡고 살아난다.(맞나? 하도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

다음호에 계속 ◯

[앙코르 유적군 지도]

